

#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간 통시적 상호영향\*

## Reciprocal Influences between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전공

박사수로 이 경 은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이 주 리

Department of Child-Welfare, Chung-Ang University

Doctoral Course : Kyung-Eun Lee

Associate Professor : Ju-Lie Lee

### ◀ 목 차 ▶

I. 서론

II. 연구 방법

III. 연구 결과

IV. 논의

참고문헌

### <Abstract>

The present longitudinal study examined reciprocal influence between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using cross-lagged autoregressive model. This study employed data(four wave) from Korea Youth Panel Survey. Participants were 300 students(143 boys, 157 girls) who were 4th graders in 2004 and 7th graders in 2007.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4th graders' self-esteem influenced 5th graders' academic achievement, in turn, 5th graders' academic achievement influenced 6th graders' self-esteem. However, students' self-esteem in 6th grade did not influence their academic achievement during 7th grade. Conversely, 6th graders' academic achievement influenced 7th graders' self-esteem.

**주제어(Key Words)** : cross-lagged autoregressive modeling, 상호영향(reciprocal influence), 자아존중감(self-esteem), 학업성취(academic achievement)

**Corresponding Author** : Ju-Lie Lee, Department of child-welfare, Chung-Ang University, 221, Heukseok-dong, Dongjak-gu, Seoul, 155-756, Korea  
Tel: +82-2-820-5730 E-mail: julie@cau.ac.kr

\* 이 논문은 2008학년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연구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완한 것임.

## I. 서론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 자신에 대한 만족이나 호의 정도, 혹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느껴지는 자신에 대한 가치감 등으로 정의되는 개념으로서(Brinthaupt & Erwin, 1992; Cook, 1987; Davis-Kean & Sandler, 2001, 재인용)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변인 중 하나이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어떠한 변인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일한 변인에 대하여 결과가 되기도 한다. 자아존중감과 그러한 관계를 가지는 변인 중 하나가 학업성취이다. 일반적으로 학업성취는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더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Erickson이 제시한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 따르면, 학령기인 초등학교 시기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이 ‘근면성’이라고 하였다. 근면성은 읽기, 쓰기, 셈하기 등 학교에서의 학습활동에서 성취감을 경험할 때 획득할 수 있으며 실패가 반복되면 아동은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김광웅, 방은령, 2000). 따라서, 초등학교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간 관계도 청소년 못지않게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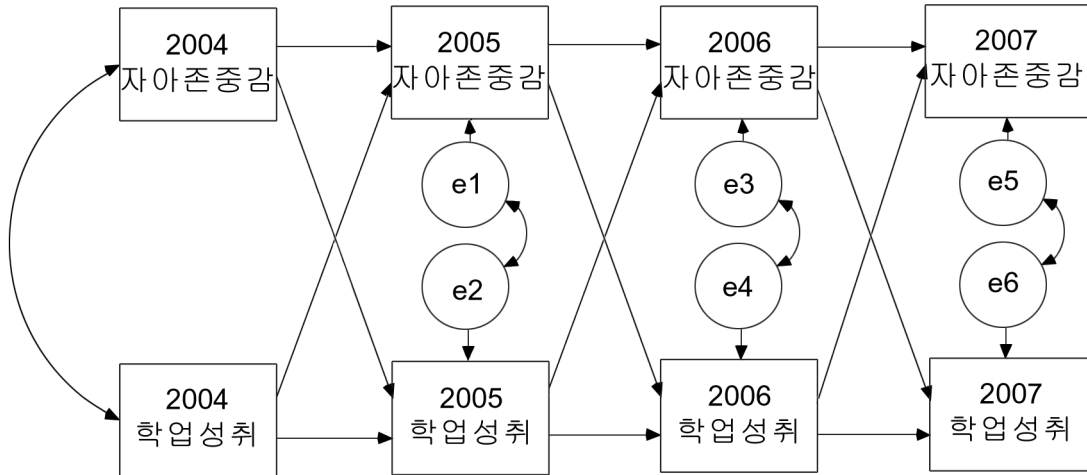
이러한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의 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쌍방향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자아존중감과 유사한 관련성을 가지는 ‘자아개념’에 대하여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살펴본 March, Hau와 Kong (2002)의 6년 종단 연구에서 자아개념과 학업성취 간의 상호영향을 보고한 바 있다. 이전 시기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받은 자아개념이 이후의 학업성취에 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자아개념에 영향을 받은 학업성취가 이후의 자아개념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서로 누적되는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그러한 가능성이 시사된다.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들(이숙정, 2006; Lipschitz-Elhawi & Itzhaky, 2005; Watkins & Astilla, 1980)이 있는 반면, 학업성취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이경은, 이주리, 2008a; Alves-Martins, Peixoto, Gouveia-Pereira, Amaral, & Pedro, 2002; Hong, 2002; Morvitz & Motta, 1992; Ross & Broh, 2000; Yu, Chan, Cheung, Sung, & Hau, 2006)들도 보고된다.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는 상호영향을 맺는 관계로 살펴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예측방향을 특정 방향으로만 살펴본한계점이 있다. 또 하나 제기되는 문제점은, 아동은 성장과정에 있으므로 연령의 변화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간 관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횡단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변인 간 관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없

었다는 것이다. 어떤 시기는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가 상호영향의 관계를 가질 수도 있지만, 어떤 시기에서는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거나 반대로 또 다른 시기에서는 학업성취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4년간의 종단 자료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이 Cross-lagged autoregressive model을 적용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간 상호인과의 관계의 방향을 분석하여,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는 상호영향의 관계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학업성취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두 변인 간의 관계의 방향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들은 성공적인 학업수행 능력을 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것으로 보인다. Watkins와 Astilla (1980)는 11세-13세의 필리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간 관계를 보고하였는데,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취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18세를 대상으로 한 Lipschitz-Elhawi와 Itzhaky(2005)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학교 적응에도 뛰어나 학업성취 수준이 더 우수하였다. 그러나, 국내 연구들에서는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경화와 정혜영(2006)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김종한(2001)의 연구에서도 일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김종한(2001)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취에 교과 선호도와 학습태도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일치되지 않은 결과들은 문화 혹은 연령의 차이 이거나, 혹은 자아존중감과 함께 설정된 다른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로 인해 다르게 나타났을 가능성 때문일 수 있다.

한편, 학업성취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연구에서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경은과 이주리(2008a)의 연구에서 친 양부모 가정 초등학교 4, 5학년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애착보다도 학업성취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같은 동양권인 홍콩 초등학교생들(8세-12세)을 대상으로 한 Yu *et al.*(2006)의 연구에서도 학업성취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서양권 문화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National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의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8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Ross & Broh(2000)의 종단 연구에서 학업성취는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Alves-Martins



〈그림 1〉 연구모형(Cross-lagged autoregressive model)

et al.(2002)의 연구에서도 7학년 학생들은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두 변인이 서로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하여 상호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측정시기가 4번(4년)인 Cross-lagged autoregressive model로서 두 변인 간 통시적 상호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와는 달리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의 상호 인과관계를 밝힘으로써,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에 대한 개입 방향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는 어떠한 방향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가?

둘째,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의 상호 인과관계의 방향은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가?

## Ⅱ.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의 초 4 패널을 사용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생들을 2004년부터 1년마다 반복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종단자료이며 현재까지 총 4년의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은 초 4(2004년), 초 5(2005년), 초 6(2006년), 중 1(2007년)로 구성된다. 연구 대상의 표집지역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다.

원자료는 총 2844명이나, 본 연구에서는 SPSS 12.0을 통

해 그 중 15%를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결측치와 극단치(Z value가 3이상일 경우 극단치로 간주, 배병렬, 2007)를 모두 제외하고 총 300명(남 143명, 여 157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이처럼 300명에 가까운 대표본은 실제로는 변인 간 관계가 유의하지 않더라도 통계적 처리 과정에서 유의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사실적인 검증을 위해서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AMOS 7.0을 사용하여 Cross-lagged autoregressive model을 분석하였는데, 모델 추정법으로 ML을 사용하였다. ML은 표본크기가 커질 경우(400이상), 자료들 간 차이를 탐지하는 것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여 모델 적합도를 저하시킨다(배병렬, 2007, 재인용; Carmines & McIver, 1981; Marsh, Balla, & McDonald, 1998; Tanaka, 1987).

### 2. 측정도구

#### 1) 자아존중감

KYPS에서 자아존중감으로 구성된 문항은 Rosenberg (1965)의 척도를 바탕으로 한 다음의 6문항이다: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역코딩).'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역코딩).' '나는 때때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역코딩).' 5점 Likert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5점 '매우 그렇다' 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6문항의 총점(6점-30점)을 사용하였으

며, Cronbach's  $\alpha$  는 2004년도 .772, 2005년도 .795, 2006년도 .787, 2007년도 .768이었다.

2) 학업성취

국어, 영어, 수학, 사회영역, 과학영역 등 총 5가지 과목에 대하여 각각 '학생의 지난학기 성적은 반에서 어느 정도였습니까?' 를 묻는 5문항의 총점(5점-25점)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은 1점 '매우 못하는 수준' 부터 5점 '매우 잘하는 수준' 으로 기입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5점 Likert 척도였다. Cronbach's  $\alpha$  는 2004년도 .679, 2005년도 .774, 2006년도 .742, 2007년도 .782였다.

3. 분석방법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간의 통시적 상호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Cross-lagged autoregressive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이는 Kim, Conger, Elder Jr과 Lorenz(2003)의 연구모형을 기초로 한 것이다. Cross-lagged autoregressive model은 본 연구에서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인 간의 상호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고안된 분석모델이다. 이는 다음의 3가지 장점을 가진다. 첫째, t 시점에서의 예측변인은 t + 1 시점의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인과관계가 성립된다. 둘째, 오차를 통제한 상태에서 측정하려는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홍세희, 유숙경, 2004). 이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측변인과 종속변인의 오차 간 상관을 설정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즉, Cross-lagged model에서 오차 간 상관을 설정하는 이유는 예측변인의 오차와 종속변인의 오차끼리의 관련을 통제하려는 목적이며,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추정할 수 있다. 셋째, 2004년 자아존중감(학업성취) → 2005년 자아존중감(학업성취) → 2006년 자아존중감(학업성취) → 2007년 자아존중감(학업성취)와 같이 각각 동일한 하나의 변인에 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로를

를 지속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각각의 변인들의 개별적인 안정성을 통제하고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추정한다(이경은, 이주리, 2008b).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은 총 300명으로 그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 구성은 남학생 143명(47.7%), 여학생 157명(52.3%)이며, 연령은 1차년도(2004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1세(1994년생) 260명(86.7%), 10세(1995년생) 40명(13.3%) 이었다. 가족 구성 형태로는 양부모 가정이 295명(98.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그 외 한부모 가정 5명(1.7%)이었다. 아버지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13명(4.5%), 고졸 130명(44.1%), 전문대졸 30명(10.2%), 대졸 102명(34.6%), 대학원졸 20명(6.7%) 이었고, 어머니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17명(5.7%), 고졸 180명(61.2%), 전문대졸 23명(7.8%), 대졸 66명(22.4%), 대학원졸 8명(2.7%) 이었다. 아버지 직업은 사무직 83명(27.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49명(16.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1명(13.8%), 판매직 38명(12.8%) 등이었으며, 어머니 직업은 무직(가정주부)가 153명(51.2%), 판매직 43명(14.4%), 사무직 21명(7.0%) 등이었다. 가구 월 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하 12명(4%), 101-200만원 83명(28%), 201-300만원 104명(35.1%), 301-400만원 85명(28.5%), 401명 이상 12명(4%) 이었다.

2.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본 연구의 두 변인인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의 각 년도별 기술통계치가 <표 1>을 통해 제시되었다.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는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모두 각각 3 이하, 10 이하로 나타나 정규성을 만족하여(배병렬, 2007, 재인용;

<표 1>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의 기술통계치

	자아존중감				학업성취			
	M(SD)	최소 (최대) 반응값	왜도 (표준 오차)	첨도 (표준 오차)	M(SD)	최소 (최대) 반응값	왜도 (표준 오차)	첨도 (표준 오차)
2004	20.63 (4.13)	8(30)	-.053 (.141)	.246 (.281)	17.09 (3.03)	8(25)	.061 (.141)	.097 (.281)
2005	20.29 (4.19)	8(30)	.146 (.141)	.072 (.281)	17.41 (3.51)	8(25)	.335 (.141)	-.243 (.281)
2006	20.29 (4.20)	8(30)	.113 (.141)	.107 (.281)	17.04 (3.11)	8(25)	.291 (.141)	.074 (.281)
2007	20.28 (3.92)	6(30)	.179 (.141)	.680 (.281)	15.61 (3.80)	5(25)	.097 (.141)	.207 (.281)

〈표 2〉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간 상관관계

	1. 2004 자존감	2. 2004 학업성취	3. 2005 자존감	4. 2005 학업성취	5. 2006 자존감	6. 2006 학업성취	7. 2007 자존감	8. 2007 학업성취
1	1							
2	.311**	1						
3	.434**	.193**	1					
4	.290**	.590**	.336**	1				
5	.316**	.176**	.444**	.256**	1			
6	.173*	.535**	.186**	.563**	.298**	1		
7	.157*	.115**	.226**	.167**	.334**	.207**	1	
8	.192**	.466**	.155**	.522**	.210**	.581**	.299**	1

\* $p < .05$ , \*\* $p < .01$ .

Kline, 2005)이후의 Cross-lagged autoregressive model의 분석에서 모델추정법으로 ML(최대우도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변인 간의 상관관계

Cross-lagged autoregressive model을 분석하기 전에,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예비 분석을 통해 변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설정한 Cross-lagged autoregressive model이 이후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수행하기에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다. 상관 분석에서 주요 변인 간 유의한 관계가 검증되면 Cross-lagged autoregressive model의 분석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

Pearson 상관분석 결과는 〈표 2〉를 통해 제시되었는데, 기대했던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간에는 모두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그림 1〉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의 변인 간 교차되는 경로들을 중심으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2004 자아존중감과 2005학업성취, 2004학업성취와 2005 자아존중감, 2005 자아존중감과 2006학업성취, 2005 학업성취와 2006 자아존중감, 2006 자아존중감과 2007 학업성취, 2006 학업성취와 2007 자아존중감 간 상관관계가 모두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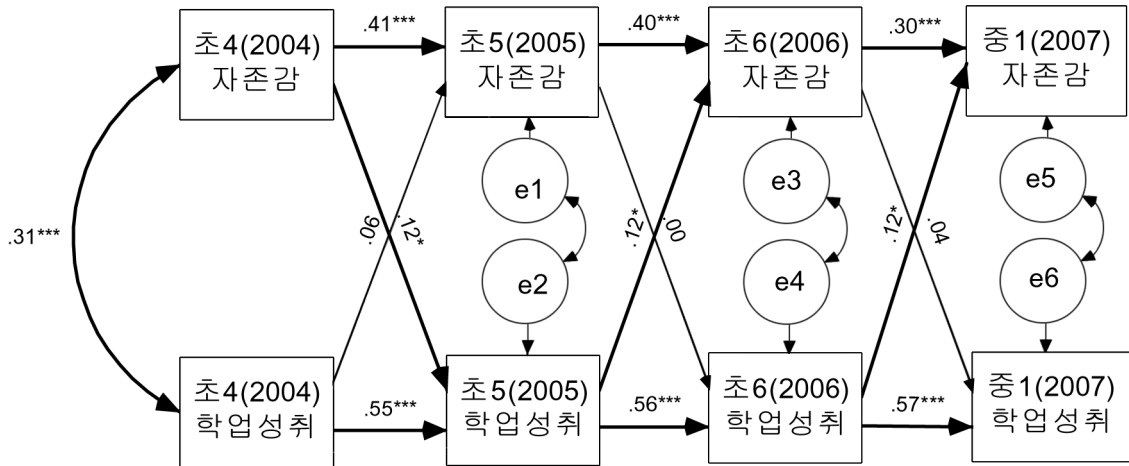
한편, 2004 자아존중감(학업성취)과 2005 자아존중감(학업성취), 2005 자아존중감(학업성취)과 2006 자아존중감(학업성취), 2006 자아존중감(학업성취)과 2007자아존중감(학업성취) 간 상관관계도 매우 높게 나타나, Cross-lagged autoregressive model의 분석에서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는 안정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간의 보다 순수한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취 각각의 안정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간 상호 영향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간 통시적 상호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Cross-lagged autoregressive model을 분석하였다(〈그림 2〉).

앞서 변인들의 정규성 만족을 검토한 결과,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가 모두 정규성을 만족하여 모델추정법으로 ML(최대우도법)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Cross-lagged autoregressive model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GFI*, *CFI*, *IFI* 등의 지수를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적합도 평가는 하나의 특정 지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보다, 여러 개의 적합도 지수들을 고려하여 모형 적합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GFI*는 절대적합지수 계열로 현재 많은 연구들을 통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수 중 하나이다. *CFI*와 *IFI*는 증분적합지수 계열에 포함되는 것으로 최근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선호되고 있는 지수이다(김계수, 2007). *GFI*, *CFI*, *IFI*의 적합성 기준은 지수가 모두 1에 가까울수록 우수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90 이상이면 적합모형이라고 판단한다(김계수, 2007). 본 연구모형에서는  $\chi^2 = 70.473$ ,  $df = 12$ ,  $p = .000$ 으로 나타나  $\chi^2$ 이 유의한 수준이었으나, *GFI*, *CFI*, *IFI* 등의 적합지수가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나(*GFI* = .949, *CFI* = .912, *IFI* = .914) 우수한 모델로 판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Cross-lagged autoregressive model을 분석한 결과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의 상호 영향을 파악하기에 앞서, 〈표 2〉의 상관관계 검증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는 모두 각각 시기 간 높은 상관이 나타나, 각 변인들의 안정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Cross-lagged autoregressive model(〈그림 2〉)을 통해 이전의 측정 시기에서 이후의 측정 시기로 가는 경로들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모두 상당한 안정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자



주. 오차 간 상관계수는 생략함.  
 주. 굵은 선은 유의한 경로를 나타내며 경로계수는 모두 표준화계수임.  
 $\chi^2 = 70.473, df = 12, GFI = .949, CFI = .912, IFI = .914, N = 300$   
 \* $p < .05$ . \*\*\* $p < .001$ .

〈그림 2〉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간 통시적 상호 영향에 대한 Cross-lagged autoregressive modeling

자아존중감: 초 4 → 초 5  $\beta = .41$ , 초 5 → 초 6  $\beta = .40$ , 초 6 → 중 1  $\beta = .30$ , 모두  $p < .001$ , 학업성취: 초 4 → 초 5  $\beta = .55$ , 초 5 → 초 6  $\beta = .56$ , 초 6 → 중 1  $\beta = .57$ , 모두  $p < .001$ . 이를 통해, 각 변인들 자체의 안정성을 모두 통제할 수 있어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간의 상호 인과관계를 보다 순수하고 명확히 검증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간의 상호 인과관계의 방향을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시기 간 경로에서는 학업성취(초 4)가 자아존중감(초 5)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아존중감(초 4)이 학업성취(초 5)에 영향을 미쳤다( $\beta = .12, p < .05$ ). 그러나, 초 5학년과 6학년 시기 간 경로에서는 자아존중감(초 5)이 학업성취(초 6)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학업성취(초 5)가 자아존중감(초 6)에 영향을 미쳤다( $\beta = .12, p < .05$ ). 요약하면, 초 4학년의 자아존중감이 초 5학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초 4학년의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받은 초 5학년의 학업성취가 다시 초 6학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초 5학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받은 초 6학년의 자아존중감은 중학교 1학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자아존중감에서 학업성취로 누적되는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에서 이후의 학업성취로, 그 학업성취가 다시 이후의 자아존중감으로 누적되는 관계는 초등학교 시기 내에서만 유의하였다. 다만, 초 6학년의 학업성취가 중학교 1학년의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측정시기 4번(4년)의 Cross-lagged autoregressive model의 분석을 통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간 상호 영향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학업성취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는 쌍방향으로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인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간 상호 인과관계의 방향은 연령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의 상호 영향에 대하여 각 시기 별로 살펴보자면, 초 4학년의 자아존중감은 초 5학년의 학업성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나, 초 4학년의 학업성취는 초 5학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초 5학년에서 초 6학년, 초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에서는 모두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학년이 낮은 시기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들일수록 학업성취가 더 좋게 나타났으나, 학년이 높아지면 더 이상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반대로 학업성취가 높은 아동들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이처럼, 연령이 높아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자아존중감이 더 이상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두 연구(김종환, 2001; 이경화,

정혜영, 2006) 결과들과 일치한다. 그러나, 중·고등학생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어도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국외의 연구들(Lipschitz-Elhawi & Itzhaky, 2005; Watkins & Astilla, 1980)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렇게 국내연구와는 일치하나, 국외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 중 하나는 문화권의 차이이다. 상대적으로 서양권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학습 분량이 더 많으며 과정도 다소 심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학년이 높아지면 학업성취에 대하여 인지적 역량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되므로 자아존중감이 더 이상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학년이 낮을 때에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학업성취가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고 대신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므로 학업성취를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년이 높아지면, 학습과정의 심화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더 이상 학업성취의 향상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므로 학업성취를 위해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개입을 실시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할 것이다. 대신 학업성취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아동이 학업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업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rickson이 제시하였듯, 아동이 학교에서 학습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근면성 또는 성취감을 가지게 된다(김광웅, 방은령, 2000). 따라서, 부모나 교사는 각 아동들의 특성과 수준을 잘 파악하여 아동이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제공하여 아동의 성공경험을 늘려주어야 한다.

둘째, 4번의 측정 시기를 통한 Cross-lagged autoregressive model의 분석에서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간 상호인과관계의 패턴을 살펴본 결과, 이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받은 학업성취가 이후의 자아존중감에 다시 영향을 미쳤으나 이러한 누적 패턴은 초등학교 시기 내에서만 유의하였다. 최초의 조사 시작 시점인 초등학교 4학년의 시기에서, 초 4학년의 자아존중감이 초 5학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초 5학년의 학업성취가 초 6학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으나 초 6학년의 자아존중감은 중학교 1학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대신, 초 6학년의 학업성취가 중학교 1학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간의 누적관계(2004 자아존중감 → 2005 학업성취 → 2006 자아존중감)가 초등학교 시기 내에서만 유의하였고 중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에서는 그 인과관계의 패턴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시간 상으로는 1년 차이 밖에 나지 않지만, 학교의 등급이 완전히 바뀌는 시기이다. 교과과정도 초등학교 때와는 확연히 달라지게 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지위도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급등하게 된다. 따라서, 초등학교 때에 나타났던 발달적 특성들은 중학교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사라지거나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에서 학업성취로, 학업성취에서 다시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의 패턴이 초 6학년에서 중 1학년으로 진학하는 시기에서는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대신 초 6학년의 학업성취가 중 1학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초등학교 6학년의 학업성취가 중학교 1학년의 자아존중감을 예측한 것은 의미있는 결과이다. 중학교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춘기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심리적 혼란기이다. 따라서, 초, 중, 고등학생 중에서 중학생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가장 크며, 자아존중감도 가장 낮은 시기로 보고된다(EBS 방송프로그램 '다큐 프라임', 2008년 2월 27일 방송, '아이의 사생활-제 3부 자아존중감'). 그러므로 초등학교 6학년의 학업성취 경험은 중학생이 되었을 때의 심리적 적응력(자아존중감)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관계로서 살펴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혹은 학업성취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어느 한 쪽 방향의 관계로만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Cross-lagged autoregressive model의 분석을 통해 통시적 상호인과관계의 방향을 검증함으로써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세울 수 있었다. 특히, 연령에 따라 그 관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가정과 교육 현장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의 개입 방향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학업성취'는 아동의 객관적인 실제 등급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학업성취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를 측정한 것이다. 실제 학업능력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로 측정하면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학업성취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나누어서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의 관계를 측정하면 두 변인의 관계가 집단에 따라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

하여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의 관계가 각 집단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차를 분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학생의 성취지향적 특성과 여학생의 관계지향적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남학생과 여학생 간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간 관계에 대하여 성차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고학년이 되면 학업성취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아동·청소년들의 발달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학업성취 능력을 매우 중요시하는 우리 나라 사회적 분위기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포르투갈의 7, 8, 9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Alves-Martins *et al.*(2002)연구에서는 7학년에서만 학업성취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8, 9학년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청소년들은 학업성취가 낮더라도 자신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관리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와 비슷한 동양 문화권인 홍콩의 연구(Yu *et al.*, 2006)에서는 학업성취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하여 동·서양 각국의 문화 간 비교 연구를 해 볼 것이 권장된다.

## ■ 참고문헌

- 김계수(2007). **Amos 7.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 김광웅, 방은령(2000). **아동발달**. 서울: 형설출판사.
- 김중환(2001).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에 대한 회귀분석. **교육학연구**, 39(4), 349-366.
- 배병렬(2007). **Amos 7에 의한 구조방정식 모델링 - 원리와 실제 -**.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이경은, 이주리(2008a). 한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관한 연구-양부모 가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5(2), 1-16.
- 이경은, 이주리(2008b). Cross-lagged Autoregressive Model을 적용한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자아존중감 간 종단관계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6), 135-141.
- 이경화, 정혜영(2006). 아동의 학업성취 관련 변인의 인과적 구조분석. **아동학회지**, 27(3), 271-284.
- 이비에스 다큐 프라임. 2008년 2월 27일 방송. 아이의 사생활-제 3부 자아존중감.
- 이숙정(2006). 중, 고생의 교사신뢰와 자아존중감, 학습동기, 학업성취 및 학급풍토 간의 관계 모형 검증. **교육심리연구**, 20(1), 197-218.
- 홍세희, 유숙경(2004).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을 적용한 내외통제성과 학업성취의 종단관계 연구. **교육심리연구**, 18(1), 381-392.
- Alves-Martins, M., Peixoto, F., Gouveia-Pereira, M., Amaral, V., & Pedro, I. (2002).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adolescents. *Educational Psychology*, 22(1), 51-62.
- Brinthaupt, T. M., & Erwin, L. J.(1992). Reporting about the self: Issues and implications. In T. M. Brinthaupt & R. P. Lipka (Eds.), *The self: definitional and methodological issues* (pp. 137-171).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Carmines, E., & McIver, J.(1981). Analyzing models with unobserved variables: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In G. Bohrnstedt & E. Borgatta(Eds.), *Social measurement: Current issues*. Beverly Hills, CA: Sage.
- Cook, P. J.(1987). A meta-analysis of studies in self-concept between the years of 1976 and 1986.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orth Texas State University, Denton, USA.
- Davis-Kean, P. E., & Sandler, H. M.(2001). A Meta-analysis of measures of self-esteem for young children: A framework for future measures. *Child Development*, 72(3), 887-906.
- Hong, Z. R.(2002). *An investigation of self-esteem and school achievement of taiwanese secondar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USA.
- Kim, K. J., Conger, R. D., Elder Jr., G. H., & Lorenz, F. O.(2003). Reciprocal influences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olescent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Child Development*, 74(1), 127-143.
- Kline, R. B.(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2nd Ed.). NY: The Guilford Press.
- Lipschitz-Elhawji, R., & Itzhaky, H.(2005). Social support, mastery, self-esteem and individual adjustment among at-risk youth. *Child & Youth Care Forum*, 34(5), 329-346.
- Marsh, H. W., Balla, J. R., & McDonald, R. P.(1988).



- Goodness-of-fit indices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effect of sample size. *Psychological Bulletin*, 103, 391-410.
- Marsh, H. W., Hau, K. T., & Kong, C. K.(2002). Multilevel causal ordering of academic self-concept and achievement: Influence of language of instruction(English compared with Chinese) for Hong Kong Student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9(3), 727-763.
- Morvitz, E., & Motta, R. W.(1992). Predictors of Self-Esteem: The roles of parent-child perceptions, achievement, and class placement.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5(1), 72-80.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s, C. E., & Broh, B. A.(2000). The Roles of self-esteem and the sense of personal control in the academic achievement process. *Sociology of Education*, 73(4), 270-284.
- Tanaka, J.(1987). How big is enough? sample size and goodness-of fit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latent variables. *Child Development*, 58, 134-46.
- Watkins, D., & Astilla, E.(1980). Self-esteem and school achievement of Filipino girls. *The Journal of Psychology*, 105, 3-5.
- Yu, C. C. W., Chan, S., Cheung, F., Sung, R. Y. T., & Hau, K. T.(2006). Are physical activity and academic performance compatible? Academic achievement, conduct, physical activity and self-esteem of Hong Kong Chinese primary school children. *Educational Studies*, 32(4), 331-341.

접 수 일 : 2008년 8월 27일

심사시작일 : 2008년 9월 3일

게재확정일 : 2008년 11월 6일